

지난 1일 불교음악연구회 찬불가 창작발표회

젊은 작곡가들 佛音포교 '의욕'

젊은 작곡가들의 창작곡이 소개된 한국불교음악회(회장 정부기)의 '95 찬불가 창작발표회'가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법가 사후서신 산화가 등 의욕찬불가를 피아노, 클라리넷, 대금 등의 단일 악기에 맞게 연주용으로 재구성한 연주곡들이 각각 소개돼 찬불가창작의 새영역을 개척하는 계기가 됐다.

이들 연주곡은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갓 졸업한 젊은 불



성철스님의 대표저서인 <선문정로>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백련문화재단과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최근 <선문정로>를 전자화한 '선문정로 연구' 프로그램을 완성, 일반 PC 통신망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성철스님 '선문정로' 컴퓨터로 읽는다

고려대장경, PC통신에 제공

50개의 서명, 1천2백47개의 주요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다. 제작팀은 올 가을에는 검색기능을 대폭 보완, 각 용어와 서명, 인명에 대한 해설도 추가시킬 방침이다.

포교원 주취, 찬불가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찬불가의 물결장기 노력이 종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찬불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조계종 포교원의 주최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범종단 진흥협의체 설치 논의

단조롭고 대중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악과 양악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근회장(불음보급회)은 노래방 기계등을 이용, 대중적인 찬불가교육과 보급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니 인터뷰

새얼굴 김수미씨



'저에게 있어 이번 발표회는 새로운 시도였죠. 그래서 걱정스러움에 많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발표회가 성황리에 끝나 찬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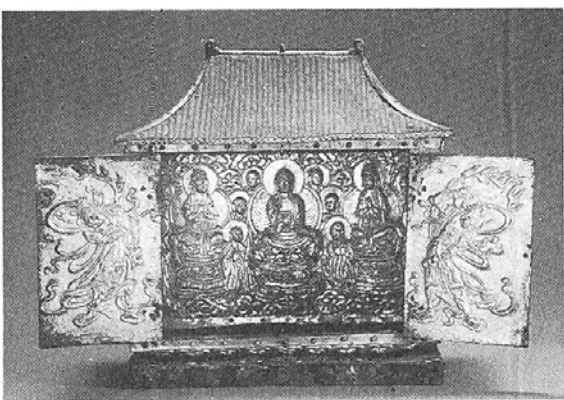
"어린이 찬불가도 만들고 싶어요"

창작에 첫발을 내디딘 저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삼귀의 주제에 의한 연주곡' '산사의 봄' '천년의 산사' 등 창작찬불가를 선보인 신예 작곡가 김수미씨(29세).

가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김씨는 쉽고 명랑한 어린이찬불가를 창작해 내겠다는 젊은 음악인다운 야무진 원력을 갖고 있다.

고려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서 볼 수 있는 '대고려 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호암갤러리에서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3~14세기의 금동불감.

"13세기 불교문화 백미 본다"

'대고려 국보전' 세계최대 수월관음도 등 출품

불화11점, 사경관경 5점, 불상 10점, 범종등 모두 2백66점이 출품된다. 출품작 가운데에는 일본 경신사가 소장하고 현존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수월관음도'가 포함돼 단연 눈길을 끈다.

보살이 화면의 오른쪽을 보도록 한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간지금니대보적경(紺紙金泥大寶積經)권32 번상도'는 일본 동경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세명의 보살이 꽃바구니를 들고 산화공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로 당시 불전 안의 불상과 벽화, 탕화등의 배치를 연구하는데 직접적 자료가 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금동불감' 등 다수의 국내 불교소장품도 전시된다.

도필선 기사

문화단신

'범음의 소리공양'

부산불음지도자협회 창립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회장 김성국)의 제1회 '범음의 소리공양'이 지난 4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됐다.

한편 동 협회는 사찰 합창단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의 찬불가, 불교음악사, 악전, 시창 등에 대한 강의를 매주 월요일 2시부터 2시간 동안 계획하고 있다.

순연철씨등 20여 회원

동국회화 전시회 열어

동국대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한 '동국회화전'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인사동 덕원 갤러리에서 열렸다.

불심시심 <24>

나는 새 자취 남기나

森羅萬象同歸幻 (삼라만상동귀환) 벌여놓은 모든 물상 결국 허깨비

鳥過長空竟沒踪 (조과장공경몰종) 허공을 지나는 새 자취 찾던가

虛空不是藏身處 (허공부시장신처) 허공이 몸 갈무리할 자리 못되나

看取風前帶雨松 (관취풍전대우송) 바람결에 비젖은 소나무 보게

상일지도 모른다. 자취 없음이란 비어있음으로 대치될 수 있는 말이니, 모든 것이 비어있다 한다면 허공이란 또 어디에 있는 것

비어 있음의 허공이 모든 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허공자체도 있음에 의지하여 비로소 없음을 알게 된다.

로까지 상상한다. 없음의 바람은 있음의 소나무 가지에 의해서 미화되었고, 비에 젖은 소나무는 더더욱 바람결을 돌보여 준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원효·요석 '러브스토리'

국립오페라단 공연

원효스님과 요석공주의 러브 스토리가 지난 4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축제'에 선보였다.

한국관광사진전 열려

동자승등 불교작품 '눈길'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관광 사진공모전 입상작품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12전시실에서 열렸다.

원효에는 권총준씨가, 요석에는 이병렬씨가 출연했다.

Advertisement for 'Ilta Kunsnim' featuring a portrait of Ilta Kunsnim and text about Buddhist teachings and books.